안동권씨복야공파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 성대히 개최

복야공파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이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경동로(송현동) '묵향회관'에서 서울, 대구, 강릉, 제천, 진천, 포항, 구미, 경주, 안동, 영주, 영천, 의성, 예천, 봉화, 합천, 산청 등 전국에서 종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덕, 권기호 고문, 권세목. 권영상 신.구 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오극 전 안동향교 전교, 권혁창 대구파친회장, 권기갑 성균관 임원,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오상 대종회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광택 경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각 지역 회장 및 종중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권석순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 국민의례, 시조 묘소 및 파조 단소 망배, 상읍례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권오익 부회장이 이임하는 권세목 회장의 약력 소개가 있었다. 안동고, 영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북도 의원, 의성향교 전교, 의성군 궁도협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종회 상임부회장, 문소관광 대표를 맡고 있다. 약력 소개가 끝나자 권영상 신임회장이 전체 종원을 대표해서 권세목 이임 회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권세목 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동안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친 것은 대단히 기쁘고 후임회장이 든든한 분이 맡아서 마음이 흡족하다"며 "오늘 같이 많은 족친들이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뻐했다. 또 권오익 부회장이 권영상 신임회장의 약력을 소개하였다. 충주사범학교, 경희대 법학과 졸업,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 안동에서 변호사 시작, 안동능곡회 창립회장,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 창설 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하민 고문변호사, 서울대총동창회 이사, 경희대총동창회 이사를 맡고 있다. 약력 소개가 끝나자 권영창 대종회장과 권철환 회장이 권영상 신임회장에게 태사주(술) 선물과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권영상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족친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역대회장의 업적을 승계하고 목표를 정해 앞으로 나아 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족친간 소통을 해야 하고 후손들에게 뿌리교육을 시켜야하며 전국에 상·하·좌·우로 연결망을 만들어 종중간 서로 도우며 살자"고 힘주어 말했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나 2년차 들어섰는데 안동권씨 1100년 기념사업은 물론,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 시조님 영정 제작과 영당 건립, 시조님 동상제막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은 대종회에 일이 많았으나 지금은 일단락되어 조용한데 이런 일들을 화합 차원에서 권철환 회장이 해결하여 1등 공신"이라며 박수를 치자고 유도하기도 했다.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이임하는 권세목 회장을 존경하고 권영상 신임회장은 안동권문의 역사를 한 페이지 쓰신 분"이라고 칭찬한 뒤 "안동능곡회장으로 있을 때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권계동 고문은 축사에서 '예전에는 권가가 권가 보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전국에서 족친들이 많이 모여 성황을 이룬 것은 정말 보기 좋고 감개무량하여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영상 회장은 지금부터 복야공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임원진을 발표했다. △회장 권영상 △상임부회장 권오익 △사무국장 권석순 △감사 권갑현, 권기욱.

이·취임식이 끝나자 행사장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을 먹었는데 권중수 영주총친회장이 건배제의를 하여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후식은 떡과 수박이 나왔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임시회의 개최

파종회장협의회 권영창 회장

파종회장협의회 권중근 회장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회장 권중근) 주최 '2024년 상반기 임시회의'가 7월 12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각 파종회장 및 부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 앞서 오는 7월 16일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개최될 조선읍지(朝鮮邑誌) 영가지(永嘉誌)와 용만(龍巒) 권기(權紀) 선생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영이 10여 분간 있었다.

동영상이 끝나자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부의 안건 심의,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중근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대종회장을 비롯, 각 파종회장들이 참석하여서 대단히 고맙다"며 "오늘 대종회 정관개정에 심의위원 추천과 능동재사 추향 때 헌관, 재유사, 집사(축관, 찬자) 추천에 관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각 파종회장님들이 안동을 찾아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안동의 권광택 경북도 의원이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권기윤 안동시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안동권씨로서 기쁘다"며 박수로 환영하자고 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안동권씨가 각 분야에서 많이 진출되어야 하고 안동권씨 15개 파가 활성화 되어야만 대종회도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종회를 맡고 1년이 지났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은 시끄러웠다"고 말하고 "취임하고 대종회에 5개 특별 기구를 만들었으며 영가지 같이 각 지역의 유물 등을 파악, 기록물로 남겨야하고 시조님 영정도 심사중이며 안동시 서후면 일대를 역사문화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도 각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권중근 회장은 부의안건(附議案件) 중 제1안 파종회장협의회에서 권오춘(부정공파회장)과 권오익(대종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선출, 대종회 심의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종회는 정관개정을 하면서 파종회장협의회에서 심사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제2안은 능동재사 추향 때 헌관, 재유사, 집사(축관. 찬자)는 각 파종 별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발전 방안은 파종회장협의회 회의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안이 나왔으나 차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타 토의에서 안동권씨 일본종친회에서 한국에 있는 안동권씨 임원들을 초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종회는 여행 경비는 1인당 120만 – 160만원에 자부담으로 하고 7월 말까지 신청 받는다. 체류 일정과 행선지 등 세부계획은 파종 별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안동권씨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기수 별장공파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5kg 짜리 백진주 쌀 1부대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추밀공파종회 3파 회장단 확대회의 개최

추밀공파종회(회장 권오돈)는 7월 11일 11시 파종회 사무실에서 권경석 회관 건립 추진위원장과 권오돈 회장을 비롯하여 권병선 창화공 회장, 권병돈 충정공-정간공 회장, 권정택 정헌공 회장, 권병돈 전 정간공 회장, 권혁원 이사, 권행완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경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3파 회장단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랜만에 뵈니 반갑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자주 뵙게 되길 바란다고 하며, 현재 있는 돈으로는 건물을 구입하기 힘들다. 금년에도 거출을 하여 8-9억까지 모이면 물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경석 추진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금년까지 모금해야 하고, 사업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으니 돈 걷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간공 종중과 정헌공 종중에 잘 부탁드린다. 정헌공 종중은 – 95.5%로 거의 답보상태였는데 이제 신임회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 활약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권정택 정헌공 회장은 회장에 취임한지 2개월 됐다. 정헌공 종중은 기금이 별로 없고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의논해서 거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권병돈 정간공 회장은 종중에서도 기존의 약정금액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회관마련 헌성금은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건물 물건에 관한 논의에서는 수원 영통지구 망포 어반 스퀘어는 접근성은 좋으나 아직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시간을 두고 관망해야 할 입장이고, 의왕의 백운벨리 상가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월중 입주 예정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대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기타 토의에서는 8월 26일 개최되는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행사에 참여를 위해 대형버스 1대를 임차하기로 했다. 권경일 처장은 해마다 이치대첩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안동권씨 족친들이 너무 적어서 권동원 참의공 이사장이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참의공 종중에서 지원할테니 되도록 많은 족친들이 참여할 수 있게 추밀공파종회에서 주관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추밀공파종회에서는 대종회와 함께 8월 종보에 광고하여 참여 인원을 대거 모집하기로 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동종친회부회장단 상반기 친목위해 모임 가져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가 주최하는 '2024년도 상반기 부회장단 모임'이 7월 10일 저녁 7시 안동시 당북길 13(당북동) '고향묵집'에서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족친 간 친목을 다지는 의미에서 상, 하반기로 나눠 갖는 부회장단 모임에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등 모두 57명 가운데 20명이 모였다. 부회장단 회원은 시장을 비롯하여 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변호사, 전 시의원, 전 교육지청장, 농협조합장, 전 단위조합장, 전 능곡회장, 기업체 대표 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회장단 모임은 처음 갖는데 바쁘신 중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나는 안동권씨 종친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지난번 안동에서 개최한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 때 일본에서 안동권씨 선수단 20명이 참가하였는데 바쁜 일정으로 대접을 소홀히 하여 미안하기 짝이 없다 "고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또 미국에서 안동권씨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면 영문으로 번역해서 활용 하겠다"고 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안동권씨가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처음 만난 사람도 있으니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중(전 교육지청장), 권재현(안동버스 대표), 권태구(동원 대표), 권기택(이화축산 대표), 권순정(영남레미콘 대표), 권영노(하나농협회사 법인대표), 권민성(안동청과합자회자 대표), 권영구(전 북안동농협조합장), 권오권(푸른들농산 대표), 권오을(전 국회의원), 권남희(전 안동시의원), 권기수(별장공파회장)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소개가 끝나자 권철환 회장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안동종친회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원로원 회원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건물도 보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능동재사 옆에 있는 낡은 건물을 개, 보수하여 시조님 영정을 모실 영당(影堂)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타 토의에서 권유식 상임부회장은 "부회장단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관광버스를 타고 외지로 나가자"고 건의했다.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은 안동시와 복야공파 후원으로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영가지와 용만(龍巒) 권기(權紀) 학술발표회"가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이날 권철환 회장은 안동명가김치(대표 권재동)를 구입,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3kg짜리 김치 1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으며 권오을 전 국회의원 겸 부회장은 저녁 식사 값을 모두 부담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신중년을 위한 가이드

맞춤형 생애설계를 통한 전직 지원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世 복야공파)

실습과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

생애설계와 전직지원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실습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로설계서 작성 실습을 통해 실제로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문서화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생애설계의 구체적인 영역

1. 재무설계 : 재무설계는 생애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금, 투자, 저축 등을 고려한 재무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중년의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재무 관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설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포함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무설계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재무설계는 또한 세금 관리 전략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무 자원을 자신의 목표와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무설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재무설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통해 신중년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관리 : 신중년의 건강 관리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과 예방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영양 섭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가족과의 관계, 친구 및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도 중요한 생애설계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신중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소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여가 및 취미 : 여가와 취미 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은 여가와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독서, 운동,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5. 경력 개발과 사회 공헌 : 경력 개발은 평생 학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력 개발은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가치를 높이고, 보다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은 단순한 일자리 탐색을 넘어서, 자신의 직업적 성장을 지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회 공헌 활동은 신중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과 사회 공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경력을 쌓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신중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은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신중년을 위한 생애설계와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방법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안동권씨 족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